

장애유아 언어와 관련된 국외 실험연구의 내용분석*

오혜정**

공주대학교 BK21 참여대학원생

황도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현욱

공주대학교 BK21 박사 후 연구원

《요약》

이 연구는 국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 중 실험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간된 해외 학술지 중에서 장애유아 언어와 관련된 실험연구 논문 52편을 선정하였다. 분석 유형은 연구 방법의 내용으로는 장애유형, 중재환경, 교수 상황, 중재자 유형, 신뢰도 및 연구의 부수적인 결과,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유형에서는 언어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중재 환경 유형에서는 치료실 상황에서의 개별 교수 형태가, 언어중재를 실시한 중재자로는 실험자가 직접 중재를 실시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신뢰도를 평가하여 보고하였으나, 그 이외에 부수적인 연구결과들인 일반화와 유지 자료나 중재 충실도, 사회적 타당도 등에 관한 평가를 실행한 연구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 중 독립 변인 유형으로는 기능적 중재 방법 중 환경중심 중재를 가장 많이 적용했으며, 종속변인 유형으로는 표현언어 중 언어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장애유아, 언어장애연구, 의사소통장애

1. 서론

언어와 의사소통의 능력은 한 개인의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발달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때문에 어린이의 언어발달 수준은 인지나 사회성과 같은 다른 발달 영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향후 관련 영역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자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및 의사소통

* 이 논문은 공주대학교 2단계 BK21 1차년도 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제1저자, 교신저자(ilgohj@hanmail.net)

기술의 교수는 유아기 때 습득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내용이다.

197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영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아동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됨에 따라 5세 이전의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말(speech), 언어(language),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발달 그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정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 및 의사소통에 관한 교수는 발달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중재의 결정적인 요소로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McLean & Cripe, 1997), 조기 진단과 조기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집단으로 구성된 보편적인 장애라고 보게 되었다(이소현, 2003; Nelson, 1993)

언어와 의사소통의 지체나 문제는 정신지체나 자폐성 장애를 비롯한 장애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Rosenberg & Abbeduto, 1993), 조기 의사소통이나 언어의 문제는 후에 학습 장애나 정서·행동 장애 출현에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Kaiser & Hester, 1994). 또한 언어나 의사소통의 능력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나 사회적 관계의 기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한 개인이 유아기 때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 발달해야 할 능력들에 있어 과도한 의존이나, 사회적 고립이나 제한 등을 감당해야 한다(Warren, 2000).

Peterson(1987)은 유아기 때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에 기능적이고 나이에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의 결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속성과 질적인 면의 방해, 생각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의 제한, 인지적 과제의 학습이나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 학습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있어 유아기 동안의 언어장애는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고, 발달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학령기에 접어들어서는 학업수행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제한된 언어 기술의 경험들로 인해 청소년과 성인기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에까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Hegde & Maul, 2006). 따라서 언어나 의사소통의 장애를 지닌 장애유아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중재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출생 직후나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유아들 대부분은 이미 발달 과정에서 정상 영유아들과 다른 언어발달 특성들을 나타나게 된다. Dale과 연구자들(2003)은 2세 때 단순히 언어발달이 지체된 유아들 중 25~80%가 3세가 되어서도 표현 언어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Paul(1993)은 2세 때 표현 언어발달이 지체된 유아들 중 45~85%가 4세가 되어서 정상 유아들의 표현 언어 발달 점수와 비교했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Girolametto와 연구자들(2001) 역시 2세 때 표현 어휘력이 부족했던 유아들은 5세가 되어서도 정상 유아들의 언어발달 척도와 비교했을 때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언어발달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학령기에 접어들어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학습에 대한 주의 집중이나 동기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Donahue, 1986). 자폐성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유아들 역시 언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언어발달의 지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Baltaxe, 1977). 또한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과 같은 발달 단계를 통하여 언어가 발달하기도 하지만 아주 느리게 발달하고 그 정도의 변동이 다양하며(Shriberg & Widder, 1990), 이러한 언어나 의사소통 기술 정도의 변동은 개인의 인지적인 지체나 다른 발달의 장애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청각장애 유아들의 언어발달 손상은 청각의 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중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 교수에 위한 조기 판별과 중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시각장애 아이들 역시 언어발달에 있어 정상 아이들과 유사해 보이지만 초기 발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며, 세상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점점 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Kuder, 2003).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장애영역의 영유아들에게 있어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는 단순히 학령기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은 장애 유아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했을 때 학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지적이거나, 정서적 발달의 위험에 놓이게 할 뿐 만 아니라 조기 사회생활의 어려움에도 직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ed, 2005). 그러므로 영유아시기에 나타나는 언어발달지체나 일탈적인 언어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중재나 언어발달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영태, 2002a)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Law와 연구가들(2004)은 말(speech)과 언어(language)발달 지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치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통하여 표현적이거나 수용적인 음운론, 의미론, 어휘에 대한 중재 효과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중재의 주 효과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Bryen과 Joyce(1985) 역시 1970~80년대의 10년 동안 중증의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된 언어 중재에 관한 43개의 연구 내용들을 ① 대상자 특성 ② 중재 이전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③ 습득한 의사소통 체계의 특징 ④ 중재 기간, 환경, 빈도 ⑤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목표의 특징 ⑥ 중재 방법 ⑦ 의사소통이나 언어와 관련된 영역에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한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중증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의 경우 김진희(1993)는 발달장애 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실시하는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1980~1990년대에 걸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중재 적용의 결과만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황도순·오혜정(2006)은 우리나라 전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언어 연구 172편을 연구 방법

과 내용에 따라 하위 범주들을 분류한 후 분석하여 한국 장애 아동 언어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장애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유아부터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를 함께 포함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발달 시기에 따른 연령을 구분한 언어연구의 동향 분석이 제안되었다. 또한 국내 언어와 관련된 연구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국외 연구 현장에서 적용한 효과적인 언어중재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외의 전 장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의 현황을 알 수가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 입각하여 국외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언어에 관한 실험연구 고찰은 향후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적용과 그 결과를 토대로 언어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침과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실험연구 분석의 결과는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성이 입증된 언어중재 방법과 중재 적용을 위한 제반 환경이나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조장하고 인지적이거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향후 언어 중재 방법들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그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황도순·오혜정(2006) 연구를 기초로 한 후속연구로서, 국외 장애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언어 관련 실험연구들의 문헌분석을 통하여 국외 장애유아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내용을 범주별로 분석하여 결과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관련 논문 중 국외 실험논문의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관련 논문 중 국외 실험논문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내용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국외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 중 장애유아의 언어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중점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은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의 총 6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중에서 대상 논문이 전혀 없거나 2편 미만인 「Exceptional Children」과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술지를 중점적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논문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① 연구주제가 장애 유아의 언어(speech)나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관련된 실험 연구로서 진실험설계(true-experimental designs)와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s), 그리고 단일집단설계(pre-experimental single group design)와 단일대상연구(single-subject research)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문자언어에 해당하는 읽기, 쓰기 영역은 제외).

② 연구 대상 유아는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한 장애영역의 범주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언어장애영역에서는 단순 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 SLI) 아동만을 포함), 장애 유아의 정의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는 유아교육진흥법에 명시된 것에 준하여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강영심 외 공저, 2006)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논문 게재 연도 범위는 각 학회지의 1990년부터 2005년 12월호 사이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이상의 3가지 기준에 따라 각 학회지에서 장애아동의 언어와 의사소통에 관련된 논문 76편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대상자 유형에서 단순 언어장애(SLI)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음, 음운 장애나 유창성 장애와 관련된 논문들이나 읽기, 쓰기와 관련된 논문들을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52편을 선정 분류하였으며, 분석 대상 논문 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1> 학회지 · 연도별 분석 논문 수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계
1990	0	0		0
1991	0	1	1	2
1992	0	1		1
1993	0	0		0
1994	0	0		0
1995	0	2	1	3
1996	0	8		8
1997	9	2		11
1998	1	2		3
1999	3	1		4

2000	1	0		1
2001	0	0		0
2002	0	2		2
2003	6	1		7
2004	3	1		4
2005	4	2		6
계	27	23	2	52

2. 자료수집방법

국의 대상 논문의 선정을 위해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핵심 단어 ‘장애 유아’ ‘언어장애’ ‘의사소통 장애’를 검색했다. 검색결과 대상 논문들이 대부분 수록된 해외 학술지를 추적한 후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논문 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대상 논문들이 수록된 해외 학술지가 대학 도서관에서 정기 구독하고 있는 저널인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와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연구들을 직접 검토 한 후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3. 분석 내용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관련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논문을 연구방법의 내용과 중재방법 및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연구방법의 내용은 1) 장애유형 2) 중재환경 및 교수 상황 3) 중재자 4) 신뢰도 및 부수적인 결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5) 독립변인(중재방법) 6) 종속변인(중재효과) 유형으로 하위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유형 분류 기준은 황도순·오혜정(2006)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1) 장애 유형

연구대상자의 장애유형 구분은 단순히 언어능력에만 결함을 보이는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① 언어장애로, 특정 장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외에도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② 청각장애 ③ 시각장애 ④ 정신지체 ⑤ 정서장애(자폐아동 포함) ⑥ 학습장애 ⑦ 지체부자유아로 구분하였다. 이밖에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 위험에 놓인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⑧ 발달지체 영역에 포함시켰다.

2) 중재환경 및 교수 상황

중재 환경은 연구에서 실험자가 제시한 중재가 발생한 장소로 전체 6개의 환경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 ① 통합교실 ② 가정 ③ 특수학급 ④ 치료실 ⑤ 지역사회 ⑥ 기타

먼저, 통합교실은 대상아이가 일반 통합 유치원에서 다니고 있으면서 통합 교실에서 중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한다. 가정은 대상아이가 부모나 형제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여 가정에서 언어 중재를 받았거나 가족들과의 자연스런 상호작용 속에서 산출된 자발화 또는 모방발화를 관찰했을 경우가 포함된다. 특수학급의 경우는 통합 교육 환경이 아닌 특수학교에 속한 유치반이거나 일반학교의 특수유치반일 경우를 말하며, 치료실은 개인 사설 치료실이나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속한 치료실이나 부분수업에서 실행되었을 경우가 해당된다. 지역사회 환경은 상점, 공원, 식당,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관이나 기타 다른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대상 논문에서 중재가 실행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위에서 분류한 5가지 장소 이외의 다른 환경일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중재나 교수가 실행된 상황을 ① 개별적으로 실행되었는지 ② 집단 상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중재자

연구에서 대상유아에게 중재를 적용한 중재자는 ① 가족 구성원들 중 부모나 형제가 중재를 했을 경우, ② 대상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교사가 직접 중재를 적용했거나 교사 훈련을 통하여 교수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교사, ③ 사설 치료실이나 지역 교육기관의 리소스룸에서의 치료사 중재와 ④ 연구자가 직접 대상유아에게 중재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험자로 ⑤ 마지막으로 통합 교육환경에서 또래교수나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신뢰도 및 부수적인 결과

관찰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지에 관한 신뢰도 검증 유무와, 이밖에도 연구의 내적, 외적 그리고 생태학적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4가지의 부수적인 변인들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인들로는 ① 일반화 자료 ② 유지 자료 ③ 중재 충실도 ④ 사회적 타당도가 대상 연구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5) 독립변인 유형

실험연구는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성립되므로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언어중재(intervention)유형을 독립변인으로 보았다.

실험연구에서 종속변인 즉,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치료 중재는 치료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아동과 치료사(교사)중 누가 치료활동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혹은 과제나 활동을 얼마만큼 구조화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언어를 언어의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김영태, 2002b). 이밖에도 언어가 지체된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어교수는 직접 언어교수와 상호작용적인 언어교수로 분류하는 등 언어나 의사소통의 중재를 연구자마다 기준의 강조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여러 중재 분류 중 치료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른 분류와 연구에서 활용된 중재의 특징을 분석하여 크게 전통적 모델과 기능적 모델로 구분하였고(Owen, 2004, p238), 다시 중재 특징의 관련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황도순·오혜정, 2006)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의 유형과 분류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 독립변인 유형 및 분류 기준

분류 기준	분류 내용
전통적 중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청각 단서를 이용한 임상적 중재 (1:1 집중 훈련, 검사도구 적용) ● 훈련놀이(drill play), 시범(modeling), 모방(시각매체) ● 행동주의 접근방법(강화, 과제분석, 용암, 촉구 등)
기능적 중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중심 중재(놀이 상황, 음악, 미술, 사회극놀이, 그림책보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 스크립트 활동) ● 환경중심 중재(시간지연, 우연학습, 요구모델), 환경구조화 ● 또래주도활동(통합 환경에서의 또래교수, 또래협력) ● 부모훈련프로그램(가족, 형제 훈련프로그램) ● 보조공학 활용(AAC, 컴퓨터, 시청각 훈련기기)

6) 종속변인 유형

실험연구에서 활동적인(active) 독립변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종속변인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이다. 즉, 향상된 언어나 의사소통의 능력 정도를 분석한 내용들로 볼 수 있다. 이런 언어학적 능력의 평가는 단순히 구어를 통한 표현의 가능 유무에만 국한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표현을 위한 기초 능력으로 말소리나 비구어단서, 상황적 단서 또는 준언어적 단서들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으며, 단어들, 단단어 문장의 이해능력과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언어의 이해력에 해당하는 수용 언어 발달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김영태, 2002). 또한 언어(language)의 표현과 이해를 위한 구성요소는 언어형식(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언어내용(의미론), 언어사용(화용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인은 언어발달 유형에 따라 크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분류한 후 각각을 언어 구성요소에 따라 세부 분류하였으며, 이 밖에도 바람직한 상호작용이나 적응행동, 또는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나

문제 행동의 감소, 이 밖에도 연구 유형의 특징상 보고되지 않은 연구들을 기타 이외의 변인들로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장애아동의 언어 관련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장애유형별, 중재 환경 및 교수 상황별, 중재자 유형별, 신뢰도 및 부수적인 결과 유형별로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별로 빈도, 백분율, 순위 등의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신뢰도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한 보조자 1명과 함께 분석 전 분류유형의 개념을 공유한 후 독립적으로 읽고, 각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일치도 수준이 85%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 후(Odom et al, 2003), 대상 논문 중 10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각각의 분석 항목에 대하여 일치한 수를 일치한 수와 일치하지 않은 수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88.3%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결과

국외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관련 실험논문의 연구를 연구방법의 내용인 장애 유형, 중재 환경 및 교수 상황, 중재자, 신뢰도 및 부수적 결과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내용 분석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

1) 장애유형

표 3에 제시된 장애 유형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언어 장애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4편(46.1%)으로 대상 논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신지체와 정서 장애가 각각 8편(15.4%), 발달지체가 7편(13.5%), 지체부자유가 1편(1.9%)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와 학습장애는 각각 0편(0.0%)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2) 중재 환경 및 교수 상황

중재가 적용된 실험 환경에 대한 하위분류에서는 치료실이 17편(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합교실과 기타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논문이 각각 12편(23.1%)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중재를 적용한 논문은 6편(11.5%), 특수학급 상황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것은 5편(9.6%)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 상황 형태는 개별 형태가 42편(81.2%)으로 집단 교수형태 10편(18.8%)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별 교수 상황에서 실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장애 유형별 결과

장애유형	빈도/백분율
언어장애	24(46.1%)
정신지체	8(15.4%)
정서장애	8(15.4%)
발달지체(중복)	7(13.5%)
청각장애	4(7.7%)
지체부자유	1(1.9%)
학습장애	0(0.0%)
시각장애	0(0.0%)
계	52(100%)

<표 4> 중재 환경 유형 및 교수 상황 결과

중재 환경 유형		빈도/백분율
(1) 중재 장소	통합교실	12(23.1%)
	가정	6(11.5%)
	특수학급	5(9.6%)
	치료실	17(32.7%)
	지역사회	0(0.0%)
	기타(언급 없음)	12(23.1%)
총계		52(100%)
(2) 교수 상황	개별형태	42(81.2%)
	집단(소그룹, 대그룹)	10(18.8%)
	총계	52(100%)

3) 중재자

표 5에 제시된 중재자 유형결과를 알아보면, 실험자가 직접 중재를 적용한 논문이 17편(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나 형제중심의 가족구성원이 14편(24.6%), 학급의 교사가 수행한 논문은 13편(22.8%)이었고, 통합환경에서 또래를 통해 중재를 수행한 논문

은 9편(15.8%), 치료사를 통해 중재를 적용하도록 한 논문은 4편(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에서 중재자가 한명이 아닌 경우가 5편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대상 논문의 수와 다르게 나타났다.

<표 5> 중재자 유형결과

중재자	빈도/백분율
실험자	17(29.8%)
가족구성원	14(24.6%)
교사	13(22.8%)
또래	9(15.8%)
치료사	4(7.0%)
계	57(100%)

4) 신뢰도 및 부수적인 결과

대상 논문에서 신뢰도를 포함한 연구의 부수적인 결과는 전체 대상 논문에서 항목별 적용 빈도를 알아보았다. 표 6에 의하면 신뢰도는 전체 52편의 논문 중 38편(73.0%)이 평가한 것으로 절반 이상이 신뢰도 측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사회적 타당도를 검증한 논문은 3편, 중재충실도를 알아본 논문은 5편, 일반화 결과 보고는 6편, 유지 결과를 보고한 것은 8편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표 6> 신뢰도 및 부수적인 결과 유형

유형	빈도/대상논문
신뢰도	38/52
사회적 타당도	3/52
중재 충실도	5/52
일반화	6/52
유지	8/52

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관한 내용

1) 독립변인 유형

실험 연구에서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언어중재는 전통적인 중재와 기능적인 중재 유형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인 중 기능적 중재 중 환경 중심 중재가 18편(26.9%)으로 가장 많았고, 전통적 중재 중 1:1 훈련과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이 각각 13편(19.4%)이었으며, 활동 중심 중재가 6편(8.9%), 강화, 또래주도, 보조공학 사용 중재가 각각 5편(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심의 부모훈련을 통한

중재는 2편(2.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통적 중재와 기능적 중재 유형의 전체 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능적 중재가 36편(53.7%)으로 전통적 중재 18편(26.9%) 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적용한 독립변인이 1개 이상일 경우 범주별 항목에 각각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체 논문의 수와 다르게 나타났다.

<표 7>

독립변인 유형

유형	빈도/백분율
전통적 중재	
1:1 훈련, 훈련놀이	13(19.4%)
강화, 시범, 모방	5(7.5%)
소계	18(26.9%)
기능적 중재	
활동중심(놀이상황, 음악, 미술, 스크립트, 극놀이)	6(8.9%)
환경중심(시간지연, 우연학습, 요구모델)	18(26.9%)
또래주도(또래교수, 또래협력)	5(7.5%)
부모훈련(가족, 형제)	2(2.9%)
보조공학(AAC, 컴퓨터, 시청각 기기)	5(7.5%)
소계	36(53.7%)
기타	
관찰 후 자료수집	13(19.4%)
소계	13(19.4%)
총계	67(100%)

2) 종속변인 유형

종속변인은 언어 발달 유형에 따라 크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나눈 후, 각각을 언어 구성요소별로 하위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8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종속변인 유형 중 표현언어 중 언어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론 영역이 27편(31.8%)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표현 언어의 화용론이 20편(23.5%), 음운, 형태가 17편(20.0%)으로 나타나 전체 유형 중 표현 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용언어 중 의미론이 6편(7.1%), 기타 변인 중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증가가 4편(11.8%), 언어행동 증가와 수용언어의 음운, 형태론이 각각 2편(2.3%)으로 수용언어의 화용론이 1편(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인 종속변인의 유형별 결과를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표현언어가 64편(75.3%)으로 수용언어 9편(10.6%) 보다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 역시 한 편의 논문에서 1개 이상의 종속변인을 관찰했을 경우 각각의 종속변인 유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체 논문의 수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8> 증속변인 유형

	유형	빈도/백분율
수용언어	언어형식(음운, 형태, 통사론)	2(2.3%)
	언어내용(의미론)	6(7.1%)
	언어사용(화용론)	1(1.2%)
	소 계	9(10.6%)
표현언어	언어형식(음운, 형태, 통사론)	17(20.0%)
	언어내용(의미론)	27(31.8%)
	언어사용(화용론)	20(23.5%)
	소 계	64(75.3%)
기타변인	바람직한 상호작용, 적응행동	4(11.8%)
	문제행동 감소, 긍정적 행동 증가	0(0.0%)
	언어행동 증가	2(2.3%)
	소 계	6(14.1%)
	총 계	79(100%)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국외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관련 논문 중 실험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나타난 언어 연구의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

먼저, 연구방법의 내용 유형 중 장애유아에서는 언어장애유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세 때 언어발달이 느린 유아들 중 20~75%가 3세가 되어서도 표현언어 수준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연구 결과들(Paul, 1991, 1993; Rescorla, 1991)이나, 2세 때 언어 지체를 가진 45%의 유아들이 3세가 되어서도 지속적인 언어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들(Dale. et. al, 2003)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장애유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시각장애유아나 학습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0편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황도순·오혜정, 200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시각손상은 언어발달을 방해하거나 발달의 지연이나 차이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고(Erin, 1990), 시각장애아들은 볼 수 있는 아이들 보다 구문발달이나 발화 길이, 의미론

적 발달에 차이점을 보이며(Landau & Gleitman, 1985), 언어의 화용론적 측면에 있어서도 대화 시 상대방에게 특유의 제스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Fraiberg, 1977)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 중요성을 간과한 일면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학습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장애 특성 상 판별 시기가 대부분 학령기가 되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에 원인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장애의 경우 학령기 이전에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면, 학령기에 접어들어서 언어와 관련되어 발생 할 수 있는 학업 성취 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청각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4편) 역시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조기 진단 여부와 관련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청각장애아들에게 있어 언어나 의사소통의 문제는 그 어느 장애 영역보다도 좀 더 빠른 시기에 진단과 중재가 실행되어야 진단 이후 청각재활이나 보청기의 도움을 좀 더 일찍 받게 된다. 그러한 진단시기와 중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청각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가 국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이 논문의 결과에서 나타난 연구의 장애 유형은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의 편중된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때 발생하는 언어의 문제가 현재의 발달 시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학령기에 접어들어서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간과한 연구 경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언어 연구의 대상이 요망된다.

중재 환경 및 교수 상황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치료실 상황(17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대상 유아들의 가정환경에서 실행된 논문(6편)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치료 상황은 제한된 공간에서 교사나 치료사에 의해 중재 환경이 구조화되고, 언어 중재 상황을 치료사나 교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대상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교수 방법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중재 상황은 행동주의 접근 방법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상 아동들이 치료 상황을 벗어나면 학습한 것을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한계점이 대두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 임상센터 역, 1984/1998). 따라서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중재 환경은 유아들의 교육환경이나 가정생활의 일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종전의 언어 중재 상황에서 나타난 제한점들을 극복 할 수 있으며(Goetz, Schuler, & Sailor, 1981), 자연스런 언어중재 상황은 아이들의 선호도에 따라 강화가 주어지고 아이들이 주도적이 되기 때문에 흥미를 더 잘 유발할 수 있고 언어 교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Warren & Kaiser, 1986). 또한 아이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스크립트화한 일과맥락적인 사건들 속에서 적절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Kim & Lombardino, 1991). 따라서 통합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언어 중재 또한 유아들의 일과 활동 중 여러 상황들(예: 간식시간, 그룹 활동 시간, 이야기 나누기 시간 등)이 언어

교수를 조장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Kuder, 2003, p.245).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중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행하고자 한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다소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재 환경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교수 상황이 집단형태(10편)보다는 개별형태(42편)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교수 상황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언어 중재가 이루어진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40편), 중재 환경에 대해 알 수 없는 연구들이 12편이나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언어 중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를 실행한 중재자 유형 결과에서는 실험자가 직접 중재를 적용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나 또는 교사나 또래가 중재를 실행한 연구들은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중재 환경이나 교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결과로 유추 할 수 있다. Snow(1972)에 의하면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언어적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사소통과정을 나타내며, 부모와의 일상생활 경험(예: 먹기, 씻기, 옷 입기, 놀기)을 통해 언어를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언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조정하고 적응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를 “언어수업”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통합교실이나 특수학급의 교사들 역시 교실 활동 상황에서 장애유아들에게 언어나 의사소통을 조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azden, 1986). 이와 같이 언어중재는 아동과 의사소통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MacDonald, 1990)에 비추어 볼 때, 중재자 유형에서 나타난 결과 역시 향후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일면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신뢰도 및 사회적 타당도를 비롯한 중재 충실도나 일반화와 유지 검증 여부에 관한 결과들에 있어서 먼저 신뢰도 측정을 한 연구는 전체 논문 중 38편(7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사소통 장애 연구의 일반적인 신뢰도 검증은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인 진실성”을 의미한다는 점(Best & Kahn, 2003)과 연구에 있어서 신뢰도는 모든 연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Schiavetti & Metz, 2002)는 점을 고려 할 때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측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 대상을 비롯한 실험연구에서의 중재 충실도는 독립 변수가 계획한 대로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Odem & Strain, 2002)이다. 이에 전체 대상 논문 중 5편만이 중재 충실도를 관찰하였기 때문에 대상연구들이 계획한 독립 변수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미약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재 과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대상자의 행동 변화가 중재 결과와 다른 일반 대상자의 기능 수준에 비추어 어느 수준인지를 밝히는 결과인 사회적 타당도(Kazdin, 1982)에 대한 평가 결과는 3편으로 아주 적게 나타났다. 실험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 목표, 과정, 효과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는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평

가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에서는 사회적 타당도 평가를 실행하여 연구의 질적인 수준과 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연구의 연속성, 일관성과 전이는 중재가 끝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화된 결과가 유지되는지를 알아보는 유지와 중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중재를 받지 않은 다른 상황이나 행동, 또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도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일반화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Odem & Strain,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보고된 일반화(6편)와 유지(8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가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본다.

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관한 내용

연구의 중재방법인 독립변인의 내용은 전체 독립변인 하위 항목 중에서 시간지연이나 우연학습, 요구 모델이 포함된 환경중심언어 중재가 18편으로 1:1 훈련(13편)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사나 교사가 중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아동의 흥미 정도와는 상관없이 치료사나 교사가 목표 언어나 문장을 정하고, 그 훈련을 위한 활동, 장난감, 또는 강화내용도 미리 정해서 대상 아동의 반응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Fey, 1986; Anderson, 2005, p379)으로 인위적이거나 개별적인 실험 상황에서 모방, 훈련, 연습이나 모델링하는 것을 강조한다. 때문에 중재에서 목표하지 않은 언어학적 구조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중재시 다른 사람과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중재 상황 이외의 다른 상황에서 중재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지게 되므로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중재에서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 반면에 시간지연이나, 우연학습, 요구모델 등이 포함되는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가르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교사나 부모가 아동이 흥미 있어 하고 관심 있는 과제를 선택하고, 아동의 환경 속에서 작용하는 자연스런 강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가장 잘 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Warren & Kaiser, 1986)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황도순·오혜정, 2006)의 결과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연구의 경우에는 대상자 연령의 폭이 넓어 분석 대상 논문의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의 비교는 어려우나 국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의 독립변인이 전통적인 중재 방법인 1:1 중재가 아닌 환경 중심 중재를 더 많이 적용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자 한 노력은 우리나라 연구 현장에서도 좀 더 지향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언어학습은 학업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적 과정으로(MacDonald & Gillete, 1988) 초기에 주로 부모나 혹은 아동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언어중재는 장애유아들에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형제를 포함한 부모 훈련 중재가 2편밖에 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자연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런 강화의 제공과 함께 아동으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동기를 유발하고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한 중재(강영심, 1998)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의 연구들에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유아의 언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공학을 중재로 적용한 연구(5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들을 포함한 보조공학 매체들은 중증 장애아들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수행과 지원을 확장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도입한 교육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맺으며 이루어져야 하는데(박은혜, 2000), 이는 중증장애유아들의 의사소통에 있어 제한점인 여러 환경에서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조공학의 이점을 활용하여 자폐성 유아들을 포함한 비 구어 장애유아들이나 지체부자유아, 또는 기타 중증의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언어중재를 실행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중재 효과인 종속변인의 내용 유형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표현언어(75.3%)가 수용언어(10.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두드러진 차이는 연령과는 상관없이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들이 여전히 표현언어 위주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의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활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때 정확한 조음, 다양한 어휘 능력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언어의 내용이나 의미 또는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수용언어에 관한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장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표현언어 이전에 수용언어를 중점적으로 교수하거나 병행하게 된다면, 이후 집중적으로 시행될 표현언어 학습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현언어 형태 중 언어의 의미론은 단순히 단어나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깨닫게 하거나, 개념 형성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들을 인식시켜주어야 하는 내용들이다(Owen, 2003, p292). 따라서 단순히 단어를 명명하게 하는 중재를 통해서 습득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인식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들 역시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장애아들에게 기능적인 언어능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능이나 화행(speech acts) 규칙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Kuder, 2003)고 볼 때, 자발적인 표현언어의 능력을 위한 어휘력의 개념이나 의미습득을 위한 언어의 내용교육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화용론에 대한 연구 목적이 증가하고 있음은 계속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는 목적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언어의 형태와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줄 수

있다(Dudley-Marling & Rhodes, 1987). 따라서 앞으로 장애유아들에게 이러한 언어의 관계들을 습득할 수 있는 중재와 연구 목적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발달과정에서 제한된 언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국의 장애유아의 언어와 관련된 실험연구들의 방법과 내용들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방법의 내용 중 연구 대상자인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언어장애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시각장애유아나 학습장애,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거나 저조한 것을 볼 때, 편중된 연구 대상의 경향에서 전반적인 장애 영역의 유아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연구의 실행이 요망된다. 중재가 실행되는 중재 환경이나 교수 상황은 구조적인 치료실상황이나 개별화된 형태의 교수 상황 보다는 자연스런 일과 활동이나 상황을 중재 맥락으로 선정하여 실행되는 것이 장애유아들의 언어나 의사소통 촉진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유아에게 언어중재를 실행하는 중재자 역시 치료사나 실험자가 직접 실행하기 보다는 장애유아들과 자연스런 의사소통 상대자가 될 수 있는 가정에서의 부모나 형제,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사나 또래들을 통한 중재가 언어활동을 촉진하고 조장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의 신뢰도나 중재 충실도 및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특히 실험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평가들의 보완을 통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

중재방법과 효과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독립변인의 유형으로는 전반적으로 치료사나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중재 보다는 아동 중심적이고 환경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중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의 바람직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아들의 언어중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반화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중재는 의사소통 환경과 관련 있는 특징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연구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유아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자연스런 상황과 의사소통 상대자를 통하여 중재가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능적인 중재방법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연구는 언어의 형식이나 단순한 단어명명 또는 어휘습득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인 개념의 습득과 더불어 그러한 언어의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화용론적인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연구 목적과 중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외 전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 중 실험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향을 제시하기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와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국외 전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내용으로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타의 학술지 검색 결과 위의 3개의 학술지를 제외한 「Exceptional Children」,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등에서는 대상 논문이 없었으나, 좀 더 많은 전문 학술지의 분석을 통하여 포괄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199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장애유아의 언어와 관련된 실험연구를 하나의 대상으로 여겨 분석하였기 때문에, 장애유아 언어 연구의 시대별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대별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내용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장애유아들을 위한 언어 교육의 이론적 근거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국외 실험연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기술연구 분야에서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연구의 방법이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뿐만이 아닌 기술연구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전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연구의 경향과 비교 분석한다면,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더불어 향후 추후 해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영심 (1998). 정신지체아를 위한 부모용 언어중재 프로그램. **정서·학습장애연구**, 14(1), 87-112.
- 강영심 외 (공저) (2006).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입문 통합교육**. 서울 : 학지사.
- 김영태 (2002a).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개발연구 : 문항 및 신뢰도 분석. **언어청각장애 연.**, 7(2), 1-23.
- 김영태 (2002b). **아동 언어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 학지사
- 김진희 (1993). The parent-implemented language interventions with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특수교육학회**, 14(2), 129-149.
- 박은혜 (2000). 자폐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활용. **특수교육학연구**, 35(2), 21-45.
- 이소현 (2003). **유아특수교육**. 서울 : 학지사.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센터(역) (1998). **언어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지도**(Ayala Manolson).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황도순, 오혜정 (2006). 한국 장애아동 언어연구의 동향과 과제. **언어청각장애연구**, 11(2), 164-188.
- Anderson, N. B., & George H. S. (2005). *Human communication disorders*(7th Ed).

- Boston, MA : Allyn and Bacon.
- Baltaxe, C. (1977). Pragmatic deficits in the language of autistic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 176-180.
- Best, J. W., & Kahn, V. J. (2003). *Research in education*(9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Bryen, D. N., & Joyce, D. G.(1985). Language intervention with the severely handicapped: A decade of research.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9*, 7-37.
- Cazden, C. B. (1986). Classroom discourse.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pp. 432-464). New York : Macmillan.
- Dale, P., Price, T., Bishop, D. V. M., & Plomin, R.(2003). Outcomes of early language delay: I Predicting persistent and transient language difficulties at 3 and 4 yea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 544-560.
- Donahue, M.(1986).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development learning disabled children. In S. Ceci (Ed), *Handbook of cognitive, social, and neuropsychological aspects of learning disabilities*(pp. 263-289). Hillsdale, NJ: Erlbaum.
- Dudlet-Marling, C., & Rhodes, L.(1987). Pragmatics and literacy.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8*, 41-52
- Erin, J. (1990). Language samples from visually impaired four-and five-year olds. *Journal of Childhood Communication Disorders, 13*, 181-191.
- Fey, M. E. (1986). *Language intervention with young children*. Boston: College -Hill Press. Fraiberg, S. (1977). *Insights from the blind*. London: Souvenir Press.
- Girolametto, L., Wiigs, M., Smyth, R., Weitzman, E., & pearce, P.(2001). Children with a history of expressive vocabulary delay : Outcomes at 5 years of age.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0*, 358-369.
- Goetz, L., Schuler, A., & Sailor, W. (1981). Functional competence as factor in communication instruction. *Exceptional Education Quarterly, 2*, 51-60.
- Hegde. M. N. & Christine. A. M. (2006) *Language disorders in children*. Boston, MA : Allyn and Bacon.
- Kaiser, A. P., & Hester, P. P. (1994). Generalization effects of enhanced milieu teach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1320-1340.
- Kazdin, A. E. (1982). *Single case research desig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Y., & Lombardino, L. (1991). The efficacy of script contexts in language comprehension intervention with children who have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845-857.
- Kuder, S. J., (2003). *Teaching students with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abilities*(2th Ed). Boston, MA : Allyn and Bacon.
- Landau, B., & Gleitman, L.(1985). *Language and experience: Evidence from the blind chi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w, J. & Nye, C. (2004). The efficacy treatment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 speech and language delay / disorder: A meta-analysi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924-943.
- MacDonald, J. D. (1990). An ecological model for social and communicative partnerships. In S. R. Schroeder(Ed), *Ecobehavioral analysi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twenty-first century* (pp. 154-181). NY: Springer Verlag.
- MacDonald, J. D., & Gillette, Y (1988). Communicating partners: A conversational model for build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with handicapped children. In K. Marfo(Ed). *Parent-Child interac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 New York: Praeger.
- McLean, L. K. & Cripe, J. W.(1997). The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In M.J. Guralnick (Ed), *The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Baltimore: Paul H. Brookes.
- Nelson, C. M.(1993). *Childhood language disorders in context: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olumbus, OH: Merrill/Macmillan.
- Odom, S. L., & Strain, P. S. (2002). Evidence-based practice in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ingle subject design research.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5*, 151-160.
- Odom, S. L., Brown, W. H., Frey, B. T., Karasu, N. K., Smith-Canter, L. L., Strain, P. S. (2003). Evidence-based practice for young children with autism : Contributions for single subject design. *Focus on Autism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 166-175.
- Owen, R. E., (2004). *Language disorders : A functional approach to intervention*(4th Ed). Boston, MA : Allyn and Bacon.
- Paul, R. (1993). Outcomes of early expressive language delay. *Journal of Childhood Communication Disorder, 15*, 7-14.
- Peterson, N L. (1987). *Early intervention for handicapped and at-risk children : An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special education*. Denver: Love Publishing Co.
- Reed, V. A. (2005). *An introduction to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3th Ed). Boston, MA : Allyn and Bacon.
- Rescorla, L. (1991). Identifying expressive language delay at age two. *Topic in Language Disorders, 11*, 14-20.
- Rosenberg, S., & Abbeduto, L. (1993).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Development, processes, and interven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chiavetti, N., & Metz, D. E. (2002). *Evaluating research communicative disorders*(4th Ed). Boston, MA : Allyn and Bacon.
- Shriberg, L., & Widder, C.(1990). Speech and prosody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3*, 255-267.
- Snow, C. E. (1972). Mothers' speech to children learning language. *Child Development, 43*, 549-565.
- Warren, S. E., & Kaiser, A. P. (1986). Incidental language teaching: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 51*, 291-299.
- Warren, S. F. (2000). The future of early communication and language intervention. *Topic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1), 33-37.

A Content Analysis of Foreign Experimental Studies on Language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y

Hae Jeong Oh

Brain Korea21 Project Force of Special Education

Do Sun Whang

Dept. of Special Education, Kongju University

Park Hyeon Ok

Brain Korea21 Project Force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By analyzing the research contents of the papers on the language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y which have been presented in research papers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such a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와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and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trend of language research for preschoolers with disability and also to present some tasks which have to be studied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52 papers on language for preschoolers with disability were chosen and subsequent categories for research contents were also analyzed.

The subsequent categories for research methods of contents included type of disability, intervention setting, instruction situation, type of intervention, intervention agents and additional outcomes and the subsequent categories for intervention method or effectiveness includ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earches on preschoolers with language delay for the types of disability, researches on clinical environment for intervention setting and researches on researchers for intervention agents were done most in number respectively. Most of the researches evaluated reliability but only a few researches evaluated generalization data, maintenance data, data on treatment fidelity and social validation measures. In the type of research intervention method content, milu teaching was used the most for independent variables while expressive language was

more used than receptive language for dependent variables.

Key Words: preschoolers with disability, language research, speech and communication disorder

K C I